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지난 9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 총 30건 상정·의결
강원FC 홈경기 순환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철회 결의안 등도 채택



강릉시의회는 지난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9월 18일 확정된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성공을 축하하며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별로 안건 심사한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역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7건을 상정·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강원 FC 홈경기 순환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철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김진용 의원은 ‘내곡동 주민센터 신축건립의 필요성’을, 이용래 의원은 ‘남부·강북권역의 비행 안전구역 규제 완화 촉구’를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기영 의장은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조속히 조치하고, 결산 심사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는 2018 동계올림픽에 이은 최대 쾌거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거로 예상되며, 강릉을 국제도시로 각인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며, “우리 강릉시의회는 ‘ITS 세계총회’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며 집행부와 함께 빈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1회계연도 결산·기금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세입 결산액 1조 7,100억여 원 □세출 결산액 1조 3,900억여 원
□현재 채권액 88억여 원, 채무액 609억 원 □기금조성 376억여 원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1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1조 7,133억 2,59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31억 9,839만 원으로 수납률은 99.1%.
- 세출 결산액은 1조 3,947억 6,01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체 3,185억 6,575만 원으로 이월사업비가 1,975억 4,949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39억 2,743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070억 8,882만 원.
-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으로는, 채권 현재액은 88억 1,266만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609억 원.
- 기금조성액은 강릉시 인재육성 기금 등 8종에 376억 6,1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 6,831만 원 증가
- 예비비 지출 결정액 28억 5,937만 원 중 24억 1,412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코로나 19 대응 업무, 대설 피해복구 등에 지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 방문

아레나수영장·솔향수목원·강릉과학산업단지·농산물도매시장 등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제30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9월 13일, 아레나수영장과 북부수영장, 강릉솔향수목원을 방문하고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제30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9월 13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 관리·운영실태 등 현안에 관해 보고받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후화한 내국동주민센터 신축건립의 필요성



김진용 의원

내국동은 가톨릭관동대학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산지구 아파트 신축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이에 따라 복합적인 행정 민원 증가와 복지 급여 수혜대상자의 다양화로 사회복지 직원의 증원과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실 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주민센터 건물과 시설은 노후화하고 가용공간도 협소하여, 늘어나는 행정 수요 및 문화 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다수 주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동 청사 신축 요구 민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국동은 2024년 강릉 자이파인베뉴 918세대 입주 시 2,000명 이상의 추가 인구 유입이 예상돼 강릉 시에서 성덕동, 교1동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 주민센터가 될 것입니다. 노후화한 내국동주민센터의 신축을 하루빨리 추진하여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주민 중심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 주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동 유입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가 일이 임박해서야 허둥지둥 서두른다'라는 '임경굴정(臨耕掘井)'의 말을 교훈 삼아 지금부터 차근차근 미리 준비하여 내국동주민센터 신축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길 거듭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비행 안전구역의 규제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 제안



이용래 의원

강릉시 전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강남, 강동면 등 강릉 남부권역은 여전히 해묵은 제한사항으로 인해 강릉 남대천을 기준으로 한 강북지역과 비교해 미래사업 개발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현재 비행 안전구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위한 집행부의 선제적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국 작전기지 소재의 지자체 비행기 소음피해에 대해 매년 보상하고 있어 비행 안전구역 규제 완화도 연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시와 제18전투비행단과의 상생협업체를 구성하여 현재 제18전투비행단 인근 섬석천 정비사업과 비행단 내 개선사업이 추진될 시 활주로의 방향 조정 등의 선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강릉시 남부권을 비롯한 상업 및 경포해변 지역의 비행 안전구역 규제 완화 용역발주 시물레이션 등을 근거로 관할 부대장인 제18전투비행단, 공군본부, 국방부와 협의를 하여 군사기지법

제3·4조에 의거 비행 안전구역 규제 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논리를 설명하여야 하고 또 국회 건의, 전국적인 이슈화 등으로 군 항공기 지에 있는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빨간 마후라'의 고향으로 칭하여진 1951년 창설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의 강릉 하늘을 지킨 71년 역사의 이면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우리 시민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행복추구권의 상실, 고도 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더 나아가 군사기지법의 규제에 의한 대규모 건축물 신축 제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인구소멸도시에서 벗어날 기회를 잃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제18전투비행단과 우리 시와의 상생을 통한 중장기적인 강릉시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또한 국가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문진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대표발의 조대영 의원

제안이유

○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문진읍 향호리 산560 일원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환경 영향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였음. 침출수와 대기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폐기물매립장이 설치된다면 주문진 주민들은 물론 연곡면, 사천면, 양양군 현남면, 그리고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 전체의 자연환경에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

○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침출수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문진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지키고, 주거환경과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의함.

이송처

국회,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

강원 FC 홈경기 순환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철회 결의안



대표발의 윤희주 의원

제안이유

○ 우리 강릉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축구의 본고장으로, 강원 FC는 2008년 강릉을 홈구장으로 창단하였음. 최근 향후 3년 강원 FC 홈경기 유치 공모제안을 진행하면서 강릉시만 유일하게 전체 홈경기 유치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9월 15일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스스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홈구장 건립 계획 백지화 및 홈경기 순환개최 방침을 언론에 발표함.

○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명백히 불공정하고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 전체 주민을 무시하는 강원 FC 홈경기 순환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결정에 결사반대함을 결의함.

이송처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강원도 18개 시·군 및 시·군의회

행정위원회



- ‘커피 도시 강릉’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도시의 유사한 축제와 차별화하는 목표와 방향성 정립 필요.
- 강릉의 야간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므로 ‘안반데기 별밤’을 연계한 관광상품 등 야간관광 대상지 적극 발굴 요청.
- 관광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정 홍보가 중요하므로 국제교류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및 사업 확대 방안 개발 강조.
- ‘스마트 위케이션(일과 휴가의 합성어, 휴가지 원격근무)’ 구축예정지의 대중교통 불편을 언급하며 접근성 대안 마련과 기업 중심 홍보에 힘써줄 것을 주문.

산업위원회



-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와 관련하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 데이터 정비를 신속하게 해 달라고 요청.
- 미사용 관정과 무단방치된 관정에 대해 폐공 조치를 요구하고 PVC 관 사용을 유도하여 수질오염에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 우수농산물 유치 등을 통해 농산물도매시장을 더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과수를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달라고 요청.
- 빈집철거와 관련된 법률이 최근 개정된 만큼 관련 조례의 미비한 점도 보완하여 정비해줄 것을 주문.

강릉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흥수 의원

제안이유

조례에서 사용하는 모호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계약’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무의 위탁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 내용

- 가. 용어의 정의에서 ‘재계약’을 삭제하고 ‘재위탁’ 용어 재정의
- 나. 의회동의안 제출기한 규정
- 다.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역할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 삭제
- 라. 의회동의안 제출기한 및 재계약 적정성 여부 등 판단 조항 삭제

의정활동 이모저모

사진 차례대로 제4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참석(8.30), 도봉구의회 지방 우수사례 비교 시찰(8.30)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9.6), 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9.8)

